#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사용 실태와 그 함의

장 승 심*

목 차

I. 서론

II. 논의의 배경과 연구방법
1. 제주결혼이주여성과 자녀 현황
2. 연구대상과 방법

III.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언어 사용실태와 문제점
1. 의사소통언어 사용실태
2. 모국어 사용실태
3. 사례로 본 언어사용실태

IV.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언어 사용과 그 함의
1. 의사소통언어와 생활 적응 그리고 자녀교육
2. 의사소통언어 사용과 그 함의

V. 결론

* 사계초등학교 교감(제주대 박사과정, 사회교육)

# Ⅰ. 서 론

언어는 문화의 요체다. 각 언어들은 역사적이고, 공동경험의 결과물로서 문화적으로 특정한 세계관과 가치세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언어는 인간문화를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이며 다양한 형식의 하나로 이러한 문화 형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다양성은 문화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정확하게 계량화하거나 분류할 수가 없다. 이중 언어나 다중 언어는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언어 다양성이 가져온 결과로서 이는 일상생활에서 한 가지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1)]

세계화 정보화 시대라고 불리는 21세기의 또 다른 이름은 다문화 사회이다.[2)]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다양한 언어를 가진 인종이 모여서 살아가는 사회이다. 현대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국가 간 집단 간 개인 간 소통의 경로들이 이루어지는바 세계 곳곳에 다양한 인종들이 한데 어울려 살게 되고 이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가 점차 눈에 띄게 불어나고 있다. 우리 제주에도 다문화 사회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자주 보이고 간혹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어느 나라 말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한 사회 속에 다양한 문화가 상생할 때 그 사회는 창조적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은 그 사회의 문화적 자산을 풍부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름'을 수용하여 함께 사는 것을 배우게 함으로써 사회를 성숙시킨다.[3)] 따라서 바람직한 의미의 사회통합은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우리 사회의 언어와 문화 규범 등을 이해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 한다. 소수민족의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한 인위적으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거나 교체하고자 한 시도가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4)]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정체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언어는 개인 간의 질서 정연하고 규칙적인 관계, 구성원 간에 공유된 의미에 대한 인식, 지식과 정보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간사회가 존속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언어사용은 한 개인의 정체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나아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특히 어머니의 언어 의사소통 능력은 자녀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

1)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2007), 유네스코의 문화 간 교육, 『다문화사회와 국제이해교육』, p210.
2) 김용신(2009),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 지향과 실행전략, 사회과교육 2009, 48(1) p.13-25
3)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2007), 다문화사회와 국제이해교육, p.5.
4) 서혁(2006), "다문화가정 현황 및 한국어 교육지원방안", p14

결혼이주여성들은 남성의 노동이주와는 달리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짧은 기간에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이주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이들은 입국과 동시에 사회적응, 신혼생활, 고부갈등, 자녀양육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을 헤아려서 이들을 도와 줄 적절한 처방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외국에서 제주에 시집온 결혼이주여성들의 보다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화요소를 언어로 보고, 기초 조사와 면접을 통해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이들의 언어사용능력과 언어사용에 대한 인식이 자녀교육에 주는 영향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 Ⅱ. 논의의 배경과 연구방법

## 1. 제주결혼이주여성과 자녀 현황

마크펜 · 키니젤리슨[5]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05년 외국인과의 결혼이 전체결혼에서 14퍼센트를 차지했는데 이는 2000년도의 4퍼센트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라고 쓰고 있다. 이렇게 국제상황의 이인종간 결혼에서조차 인용될 정도로 한국의 국제결혼의 예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제주도는 어떠한가. 2009년 4월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체류 이주외국인은 6,941명으로 결혼이민자가 1,444명 이주노동자가 2,240명(출입국자료) 다문화가정 자녀 1,180명 유학생 79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48,852명으로 70.4%를 차지하고, 서귀포시는 2,056명으로 29.6%를 차지하여 제주시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제주결혼이주여성은 1,444명으로 결혼이주자 1,100명, 혼인귀화자 344명으로 제주시 지역에 1,006명이 살고 있고, 서귀포시에 438명이 살고 있다. 이를 자세히 연도별, 국적별로 제주결혼이주여성 증가현황을 보면 <표 3>과 같다.

5) 마크펜 · 키니젤리슨(2008) 『세상의 룰을 바꾸는 특별한 1%의 법칙 마이크로 트렌드』, pp.128-130

<표 2> 제주결혼이주여성

| 구분 | 계 | 중국 | 베트남 | 필리핀 | 일본 | 미국 | 태국 | 몽골 | 러시아 | 기타 |
|---|---|---|---|---|---|---|---|---|---|---|
| 제주시 | 1,006 | 473 | 265 | 108 | 53 | 15 | 6 | 3 | 6 | 77 |
| 서귀포시 | 438 | 213 | 95 | 75 | 19 | 2 | 6 | 6 | 0 | 22 |
| 계 | 1,444 | 686 | 360 | 183 | 72 | 17 | 12 | 9 | 6 | 99 |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2009.4.30 기준)

<표 3> 제주결혼이주여성

| 국적 / 연도 | 계 | 타이완 | 중국 | 일본 | 미국 | 캐나다 | 필리핀 | 인도네시아 | 러시아 | 몽골 | 베트남 | 기타 |
|---|---|---|---|---|---|---|---|---|---|---|---|---|
| 2003 | 293 | 2 | 156 | 67 | 8 | 3 | 35 | 1 | 7 | 1 | 1 | 12 |
| 2004 | 505 | 1 | 277 | 79 | 12 | 8 | 48 | 0 | 11 | 1 | 43 | 25 |
| 2005 | 607 | 3 | 320 | 83 | 15 | 6 | 54 | 0 | 12 | 2 | 81 | 31 |
| 2006 | 760 | 4 | 387 | 78 | 19 | 9 | 60 | 0 | 9 | 3 | 156 | 35 |
| 2007 | 846 | 3 | 400 | 81 | 20 | 14 | 75 | 0 | 5 | 4 | 204 | 40 |
| 2008 | 1,053 | 9 | 410 | 70 | 19 | 8 | 132 | 0 | 9 | 8 | 309 | 60 |
| 2009 | 1,444 | 10 | 432 | 72 | 17 | 8 | 183 | 1 | 6 | 9 | 360 | 92 |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2009.4.30 기준)

<표 3>을 보면 제주결혼이주여성은 2003년 말 293명에 비해 5배 가까이 불어난 1,444명으로 파악되고 2004년에서 2008년까지는 100명에서 200명 정도 증가하다가 2009년에는 무려 400명에 가깝게 더 많이 불어났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자녀인 다문화가정 학생들도 증가하는 바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 년도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합계 |
|---|---|---|---|---|---|
| 2005 | - | 20 | 2 | 1 | 23 |
| 2006.3월 | - | 53 | 3 | 0 | 56 |
| 2007.4월 | 14 | 112 | 17 | 3 | 146 |
| 2008.4월 | 19 | 158 | 23 | 7 | 207 |
| 2009.4월 | 28 | 196 | 34 | 14 | 272 |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도교육청 발표자료 (2009년 4월 기준)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가정 학생은 작년 207명에서 올해 272명으로 약 31%가 증가했는데 해마다 꾸준히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 272명중에 국제결혼가정자녀가 252명, 외국인근로자가정 자녀가 10명, 북한이탈주민자녀가 10명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일본, 중국(조선족 포함),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내 결혼이주여성들이 불어나고 다문화가정 자녀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그들의 결혼생활에서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앞으로 연구가 시급하다. 의사소통장애가 이들 가정이나 자녀의 원만한 사회생활과 개인발전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러한 다문화가정 학생지원을 위하여 여러 가지 교육지원 사업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가운데 국어 수준별 학습이 필요한 학생을 파악한 결과에 따라 이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기초학습이 안 되는 경우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부정확한 발음으로 인한 말하기 곤란으로 느낌 감정표현 곤란, 둘째는 읽기는 가능하나 뜻은 전혀 몰라서 독해력이 부족한 경우, 셋째는 어휘력 부족으로 글 내용의 정확한 이해가 곤란한 경우, 받침 있는 쓰기가 안 되며 받아쓰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는 일본에서 살다가 전학 온 지 일 년 정도 밖에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필리핀과 카자흐스탄 가정의 경우에는 말하기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양호하지만 글을 써서 자기를 나타내거나 어휘력부족으로 안한 정확한 뜻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국어는 다른 과목의 학습을 하기 위한 도구교과로서도 매우 중요한데 국어실력이 이러다 보면 다른 과목의 학업성취도 또한 그리 높지 못하리라고 전망이 되는 것이다.

## 2. 연구대상과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외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시집 온 애월읍, 한림읍, 대정읍 지역에 사는 여성들로서 일부러 어느 지역을 택하거나 특정대상을 지목한 것은 아니고 접근이 가능하며 인터뷰에 응해 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례로 채택한 조사대상자는 <표 5>와 같다.

<표 5> 조사 대상자

| 이름<br>나이 | 출신국 | 가족구성 | 교육정도 | 결혼형태 및<br>현거주지 | 배우자 직업,<br>연령 | 이주경로 및<br>특이사항 |
|---|---|---|---|---|---|---|
| 로***(29) | 필리핀 | 남편(39)<br>아들2(9살,7살) | 고교재학<br>(방통) | 연애결혼/10년<br>애월읍 수산리 | 자영업(고물수<br>집재활용) | 결혼 |
| 김***<br>(29) | 베트남 | 남편(46)<br>시어머니<br>딸2(4살,3살) | 중졸 | 결혼정보센터/4년<br>애월읍애월리 | 사업(광고) | 결혼 |
| 따***(26) | 라오스 | 남편(42)<br>임신 중<br>시부모(두 분) | 초졸 | 결혼정보센터<br>/1년 미만<br>애월읍 용흥리 | 건축 | 결혼 |
| 안***(33) | 필리핀 | 남편(39)<br>아들2(7살,5살) | 고졸 | 중매/8년<br>애월읍 애월리 | 창호만듦 | 결혼 |
| 로***(33) | 필리핀 | 남편(35)<br>딸2(초등3,4살) | college<br>level | 통일교중매/10년<br>한경면 조수리 | 무직(교통사고<br>로 뇌손상 ) | 결혼 |
| 응***(23) | 베트남 | 남편(42)<br>아들1(3살)<br>시부모(두 분) | 고졸 | 3년<br>애월읍유수암리 | 자동차정비 | 결혼 |
| 누***(27) | 베트남 | 남편(39)<br>아들2(3살,1살) | 초졸 | 결혼정보센터<br>/3년<br>애월읍하귀리 | 포클레인기사 | 결혼 |
| 쏘***(48) | 필리핀 | 남편(54)<br>딸1(초등3) | college<br>level | 통일교<br>중매/10년<br>한림읍한림리 | 원양어선 | 결혼 |
| 옥***(24) | 캄보디아 | 남편(54)<br>임신 중 | 초졸 | 결혼정보센터1년<br>제주시외도동 | 관광<br>버스기사 | 남편은3번째<br>결혼(전처아들<br>3명)) |
| 니***(45) | 필리핀 | 남편(53)<br>딸2(7살,6살) | 고졸 | 중매/8년<br>애월읍고성리 | 건축노동 | |
| 람***(25) | 베트남 | 남편(37)<br>임신 중 | 고졸 | 8개월<br>애월읍금성리 | 쇼핑몰 | 통역해줌 |
| 가***(22) | 필리핀 | 남편(41)<br>임신 중 | 고졸 | 결혼정보/1년<br>애월읍애월리 | 우체국 | |
| 후***(40) | 중국 | 남편(50)<br>아들(초1)딸(6) | 고졸 | 친구소개/8년<br>대정읍보성리 | 농사 | |
| 팜***(27) | 베트남 | 남편,아들(세살)<br>딸(1살) | 고졸 | /3년3개월<br>조천읍함덕리 | 농사 | |
| 투***(28) | 베트남 | 남편,아들(세살)<br>시부모 | 고졸 | 결혼정보/3년6개월,<br>애월읍광령리 | 농사 | |

본 연구는 제주도내 일부지역에 살고 있는 22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그 가운데 일부는 시집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통역을 하며 조사했는데 기본실태조사 설문지에 통역자의 내용이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경우가 있어서 아쉽지만 양적 통계에서는 제외하였으며 그 내용이나 들려준 이야기는 연구에 참고하여 반영하였다.

대상자 대부분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문화원에 다니고 있으나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의 대상자도 있으며 일부의 내용은 제주이주민센터가 주최한 이주민말하기대회에 출전한 사람들의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 내용을 제주도내 결혼이주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결혼이민자의 제주생활기간이 6개월부터 10년으로 다양함에 따라 통역이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소통이나 의사표현에 다소 서투른 점이 있어서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의사표현이 되었는지를 일일이 따져보지 못한 경우도 있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본토가 아닌 섬이라는 고유특성을 지닌 제주도에 시집와서 살며 겪는 사회문화적응 과정에서 자신의 모국어와 한국어 사용욕구와 사용빈도, 제주어 사용실태조사를 통해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언어사용실태와 의사소통능력이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의 특성상 속 깊은 대화가 힘들고 한국어 독해력이 낮은 관계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했다. 특히 양적연구 방법으로는 쉽고 간단한 질문으로 기본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질적연구 방법으로는 기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물 등에서 인터뷰 내용이나 자료를 살펴보고 추가로 심층면접을 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외에도 다문화관련 도서 및 국제결혼관련 정부발표자료 및 지자체 발간자료, 신문기사, 학술지, 이민자 말하기대회 등에서 언어사용에 관한 내용이 보일 때마다 발췌하고 정리하였다.

# Ⅲ.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언어 사용실태와 문제점

## 1. 의사소통 언어사용 실태

### (1) 한국어에 대한 생각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살기를 원해서 왔기 때문에 아기를 낳고 기르며 스스로 한국사회에 동화되기를 원한다. 물론 내면에는 자기가 나고 자란 모국에 대한 애정을 품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외국에 가서 살고 있으면서 품는 그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안착하기 위해 우선 언어를 배우는 일을 매우 중요시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선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에 절실히 동감하는데 한국어를 배우면서는 한국어 자체도 어렵지만 존대 말이나 동의어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사용에 대해 매우 어려워한다.

누군가 나에게 시부모가 살아 계시냐고 묻었을 때 나는 시아버지는 죽었어요 대답하니까 죽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라고 가르쳐 줬고 남편은 죽은이라는 말이 죽었다, 돌아가셨다, 운명했다, 서거했다, 영반하셨다, 유명을 달리하셨다. 숨을 멈췄다. 뇌사했다 등이라 했다. (그리고)너무나 많은 말들을 상황에 따라 써야 된다는 한국말이 배울수록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팜-필리핀)[6]

또한 같은 조선족이라고 해도 한국사회의 달라진 언어상황과 외래어의 증가로 인한 언어사용으로 힘들어하기도 한다.

같은 조선족이고 한국말인데 한국 사람이 못 알아들을 때 되게 많았어. ……. 상대방이 한 육십 프로, 칠십 프로 (알아듣나)…….외래어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 한국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우리 평상시에 하는 말은 다 알아듣는데 …….외래어나 그런 거 쓸 때는 '무슨 말 하는 거지?' 잘 모르는 (조선족-5)

한국어 좀 한다고 해도 그거 아니잖아요. 완전한 그것도 아니고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일상회화만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조선족-4)

한국말로 표현하는 거, 저는 그거에요…….저는 바본거 같아요. 왜냐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필리핀-3)[7]

몽골에서의 생활과 한국, 제주도의 생활에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고요. 언어 때문에요 간단한 의사소통도 힘들기 때문에 그게 가장 불편해요. 내생각도 말하고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의사소통도 하고 싶은데 아직 언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지 -몽골)

한국말을 못하니까 그게 가장 힘들어요. 만약에 애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말이 잘

6) 팜***(2009) 제3회 제주이주민 말하기대회에서 필리핀 출신의 팜이 말한 내용
7) 강현주 위 논문 p.48, p.50 인용(이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도지역 이주여성 12명임)

통하지 않으니깐……. 그게 뭔이 힘들어요. 언어적인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는 한국말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안돼요(정-중국)[8]

이렇게 결혼이주여성들은 외래어나 높임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동의어, 의사소통 미숙 등으로 인해 생활현장에서 자녀양육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는데, 위의 조선족처럼 한국말을 할 줄 안다고 해도 문화가 전혀 다른 상황에서의 언어사용은 의사소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제주어에 대한 생각

결혼이주여성은 육지 사람이든 제주에 와서 사는 사람은 여지없이 독특한 제주어와 맞부딪치게 된다. 특히 농촌으로 갈수록 지방마다 다른 제주어 특유의 사용은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거나 듣는 이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 예를 들면 "뚤픈다"는 "딸을 결혼시킨다"를 의미하고 "아덜픈다"는 "아들을 결혼시킨다"를 나타내며 '수고했다'는 말은 제주어로 "속았수다" 라고 하는 등 표현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어는 생활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어진 언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노력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우리 앞에 문화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적응과정에 별문제 없이(사실 부단한 노력의 결과이겠지만 원주민인 우리 눈에는 말은 잘 못해도 잘 알아들어서 그렇게 보인다) 사용하며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너무 커서 소외되거나 절망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제주어는 배우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냥 언어를 배우려고 할 때에도 개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상 언어에 완전 노출된 상황에서 대략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9]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언어를 통한 자기의 정확한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진다. 또한 그 기간이라는 것도 언어상황에 완전노출이 되어있는가에 따라서도 다른데, 그 것 역시 힘든 일인데다가, 노출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가르쳐줄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다.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이 한국어에 대해 어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를 배워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우리들보다 몇 배 힘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생활가운데에서 직접 몸으로 부

8) 염미경, 김규리(2008) 제주결혼이주여성들의 결혼이주, 딜레마와 적응 『지역사회학』 2008년 제9권 제2호, p.162

9) 서혁(2006), "다문화가정 현황 및 한국어 교육지원방안", p.14

딪치며 살아가야하는 절실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국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상황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이 한국어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선행 논문이나 책에서 살펴보면 육지에 시집온 결혼이주여성은 제주에 시집온 이민자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에 시집온 이주여성들은 한국어에 대한 생각은 별로 다르지 않아도 제주어에 대한 생각들은 서로 달랐다. 제주어가 쉽다고, 또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표준말이 아니어서 힘들다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아저씨가 '삼촌 어드래 감수광?'이렇게 물어본 다음 좀 있다가 '강 방 왕 곱읍써예'이랬습니다. 저는 '와 정말 일본어 잘 하시네요'이렇게 말했는데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친구한테 물어보니 일본어가 아닌 제주도 사투리라고 해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제주도 사투리는 내용이 함축되고 중국어처럼 성조가 있는거 같아서 재미있고 또 말을 할 때는 마치 노래 부르는 거 같아서 재미있습니다. (진청-중국)[10]

남편은 한국의 표준어로 정확하게 설명해주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시어머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아주 옛날사투리로 저에게 말씀하고 일을 시키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 눈치껏 한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사투리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에 화내곤 했습니다. 한번은 시어머니가 '미깡(귤)갔땅 먹으라'하셨는데 무엇을 갔다먹으란 말인지 몰라서 한참을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팜-필리핀)[11]

그런데 어떤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어와 제주어가 비슷하고 또한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좋아하기도 한다.

"삼촌 어디 가멘? 할망 어디 감수꽈? 가멘? 은 가요, 먹언? 먹었어요, 자멘? 자요, 어디가젠? 어디가요, 보면 비슷하잖아? 재미있어. ㅎㅎ (투***-베트남)

그러나 이들이 한국어와 제주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일단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들이 언어를 배우기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동안, 시집 식구들이 이주여성의 모국문화에 대해 배우고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나마 서로 소통이 쉬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주여성의 모국문화보다는 우리문화를 가르쳐 동화시키려 하기 때문에 이주여성들로서는 한국어를 몰라서 겪는 어려움과 한국어 공부, 주위의 지나친 기대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10) 진청(2009) 제주관광대학에 유학 온 중국유학생으로 제3회 제주이주민말하기 대회 발표내용
11) 팜***(2009), 위 자료 참조

한편, 한국어습득 관련 프로그램이나 교재가 있다 해도 아직은 정착된 단계가 아니어서 두루뭉술하게 자료를 제작한 것이 많다. 이 자료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불분명할 때도 있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주부로서 학부모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쓰이는 말은 분명 어린이들과는 다를 수도 있을 터이니 말이다.

## 2. 모국어 사용실태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어 사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모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대략적인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그 가운데 유효한 12명의 심층면접결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한국어 이해 수준

| 설문 내용 | 모두 이해 | 대체로 이해 | 보통 | 조금 이해 | 전혀 모름 | 합계 |
|---|---|---|---|---|---|---|
| 처음 한국어 수준은? | | | | 6 | 6 | 12 |
| 지금 한국어 수준은? | 1 | 6 | 3 | 2 | | 12 |
| 제주어 이해 수준은? | 1 | 2 | 3 | 4 | 2 | 12 |

<표 6>을 보면 처음 한국에 시집올 때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고 오는 경우가 50%이고 조금 이해하는 정도가 50%이고, 대부분 시집와서 살면서 점점 한국어 이해정도가 나아지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본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정도인 것이고 처음의 한국어 수준에 대해서는 어휘력이나 독해력 등에 대한 정확한 표준 검사가 없었으므로 조금 이해한다고 해도 상황이나 수준, 본인의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 한 예로 한국어를 조금 이해한다고 했으나 연구자가 조사를 위해 질문을 하자 쉬운 말이었는데도 무슨 뜻인지 어려워하였으며, 제주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표 7> 한국어와 제주어의 차이

| 설문 내용 | 매우 다르다 | 다르다 | 보통 | 비슷하다 | 매우 비슷하다 | 합계 |
|---|---|---|---|---|---|---|
| 한국어와 제주어가 다른가? | 4 | 5 | 2 | 1 | | 12 |

**한국어와 제주어가 다르냐는 질문에는 매우 다르거나 다르다는 사람이 9명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주어의 독특한 언어 환경을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모국어 사용 실태

| 설문 내용 | 자주 | 가끔 | 보통 | 조금 사용 | 전혀 사용안함 | 합계 |
|---|---|---|---|---|---|---|
| 집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는가? | 2 | 2 | 2 | 1 | 5 | 12 |
| 자녀에게 모국어 가르치는가? | 5 | 2 | 2 | 임신 중1명 자녀 없음1명 | 1 | 12 |

이상의 대상자들은 같은 문화원에서 친구를 만나서 한국어와 컴퓨터를 배우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다. 관계자 말에 의하면 이들은 모국어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후진국이어서, 또는 모국어가 부끄러워서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 했는데 주위의 다문화가족 가운데 결혼 10년 이상 된 경우의 다음사례를 듣고 그런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일본인 남편을 둔 그 가정은 아이에게 일본어를 가르치지 않아도 크면 자연히 알게 되겠거니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했다. 아이들과 같이 시댁 어른들을 뵈러 일본에 데리고 갔는데 일본말을 못해서 가족들과 이야기도 나눌 수 없던 사례를 들려주며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말이 서투르다고 포기하지 말고 부모의 모국어를 같이 가르치길 권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들 대부분은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겠다는 경우가 70%였으나 실제 면담해 본 결과는 잘 가르치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아이가 어리거나, 남편이 싫어하거나, 아이가 모국어를 가르쳐주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어려워해서), 등등으로 대답했다.

이상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심층면접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은 본인의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 매우 답답해하며 둘째, 자식을 키우느라고 바쁜데다가 집안 일 등으로 인해 배울 기회를 자주 갖지 못하고 있다. 셋째, 자신의 모국어를 자식에게 가르칠 시간도 없으며 주위의 이목과 시집의 눈치를 보느라고 잘 가르치려하지 않는다. 넷째, 그렇지만 한국어가 잘 안되면 모국어라도 가르쳐야 하겠다는 생각들을 간직하고는 있다.

## 3. 사례로 본 언어사용실태

다음 사례들은 심층면접조사대상자의 면접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사례 1)

데***의 경우에는 결혼정보센터를 통해 한국에 온 지 1년 되었으며 임신 6개월째이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어는 전혀 못하였으나 집에서 모국어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으로 언어소통문제를 들고 있는데 처음 올 때 한국어도 전혀 모르고 지금도 조금밖에 모르는데, 제주어도 전혀 이해 못하며 한국어와 제주어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남편은 아내의 모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지 않으며, 남편과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모국가족과 1주일에 1-2회 전화한다고 하였다.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배우자나 시부모님 시댁친척이나 이웃들에 대하여 매우 만족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는 언어소통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서도 남편과 다툰 때는 대화로 해소한다고 하였다. 자기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하는데 (말에 어폐가 있어서 물어보고 싶었으나 직접 물어보기가 미안해서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대화로 푼다는 말은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위 사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연구자는 남편과는 일면식에서 서로 결혼상대로 결정되어서 단기간에 시집을 오긴 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바람과 비록 한국말은 서툴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서 살아가려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이나 정체성을 유지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사례 2)

베트남에서 온 투***의 경우는 모국어 사용을 적당히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 베트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정보센터를 통해 들어온 지 3년 반이 된 투***는 지금 세 살 된 아들이 있는데 집에서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사용하며 아이를 키운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어를 조금밖에 몰랐는데 지금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제주어를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온 후 7개월 만에 임신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시부모님이 아기 낳을 때 돌봐주셨다고 하면서 아기 낳고 키우면서 힘들었던 점을 말했다. 문화원 관계자는 아이가 말이 늦어서 걱정이 되었는데 엄마가 15개월째 일을 하게 되어 어린이집에 맡긴 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말도 잘 안하던 아이가 6개월 지나면서 홍얼홍얼 노래도 부르고 1년이 지나면서는 말도 한다고 했다. 물론 혹자는 가만히 두어도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문화원관계자는 어린이집 보낸 것이 언어발달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걸 이 아이의 밝아진 얼굴표정으로도 알 수 있다고 했다.

"한국말도 알지 못하고 아기 태어나고 막 불편한 거 많이 있어요. 학교나 어린이집 보내는 거, 다 애기언마, 우리애기 혼자 언마 한국사람. 제가 열심히 공부(해야 해) 아직도 국적 취득하지 않아, 제가 한국사람(이지) 한국사람 아니잖아 신분증으로. 제가 한국사람, 한국말 알 잘해, (그러나) 한국말 알아듣지 못해, 그냥 한국 사람으로 5년 10년 20년 후 언제 한국말 아마 다 할 수 있어 10년 안 해도 되요, 한국 사람도 한국사람 할 수 있고 한국 사람도 한국사람 할 수 있잖아 다 똑같은 한국사람 한국말 잘 해야 해, 나 한국 국적취득하고 싶어, 돈도 많이 들어. 그냥 한국사람 신분증 써도 되잖아 국적취득? 아니 안했어요. 할 생각 없어요. 영주권 있으면 되요."

"집에서 베트남 말 별로 안 써요 제가 일해야 하니까 가나다라 한국어 가르쳐 그래서 시간 없어 가끔씩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베트남말해요 안녕하세요, 할숙모 할삼촌 하나씩 가르쳐요. 제도 시간 없어요. 이제 창***이 세 살,애기 15개월까지 집에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많이 키워요 아빠만 애기보고 언마도 저녁만 있어서 베트남말 못해요 집에 한 달간 있을 땐 제가 한국말 못해요 그래도 제가 배우는 거 한국말만 했어요. 베트남말 안 써요 애기가 베트남말 싫어, 싫어, 언마통화하면 인사만 하고 도망가요. 베트남 말 가르치면 싫어해 영어는 해요. 언마는 베트남말 가르치면 할머니 한국말 못해, 집에서 애기한테 베트남말 사용해봤어요. 한국말하고 나서 다시 베트남말하고 그러면 베트남말 싫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베트남말 가르치는 거 싫어해. 나라 하나만 해야 빨리 배워. 베트남말을 가르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 30분, 가끔씩 옷도 한국말 베트남말을 다시 하고 가르쳐."

"다음에 창***이 크면 베트남 집에 가면, 베트남말 더 잘 배울 거 같아. 안녕하세요, '신짜오' 이렇게 해요. 우리 남편 베트남말 가르칠 시간 나 없어. 나 시간 없어, 남편은 시간 없어서 베트남말 못하고 사전 찾아요. 언마 시간 없어. 한국말 못해서 힘들 때는 가끔씩 사람 많은 거 다른 사람 저한테 말하는 거 알아듣지 못하는 거, 기분 나빠요. 마을 사람들이 저한테 말(하는데) 못 알아들면 기분 나빠요 열심히 공부할거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테 느네 언마 한국말 못해 (이러면)완전 기분 나쁘지 가나다라 공부하는데 언마도 한국사람 언마(처럼) 할 수 있어요. 베트남 언마 한국사람 언마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저번 어린이집 했어요. 선생님, 우리 창***이 어떻게 공부해요 가끔씩 전화해요."

투***는 베트남 말을 한국에서 쓰는 것에 대해 쉿쉿하며 조용히 한다고 하였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한국사람이 베트남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베트남친구 전화오면 '쉬-잇 좀 있다가 전화해요' 하면서 통화 안 해요, 조심조심 해요.왜냐하면 다보니까, 큰소리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싫어하니까, 조용조용, 살살. 다른 한국사람 베트남말 머리아파요. 베트남 듣기는 다른 한국사람 머리아파요. 여기한국사람 저기한국사람 베트남말 따로 하면 정말 머리 아파요. 베트남친구 만나 베트남말하고 한국친구 만나 한국말 하고 떨어진 베트남 말 따로 하는 거 진짜 머리아파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은 손자에게 베트남 말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겉으로 드러내어 하라 말라는 하지 않지만

"창***이 언마가 빨리 한국말 배워 다음에 베트남 말 아기 가르쳐야지 조금씩만 더 열심히 네가 먼저 한국말 배워야지"하면서 며느리가 한국말을 먼저 배우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느도 한국말 잘 모르멍 아기한테 경 어려운 말 그르치문 어떵허느냐"하면서 베트남 말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하면서 모국 언어를 쓰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투***는 나 시간 없어.

"저녁에 늦어.(그래도) 베트남말을 가르쳐. 가끔씩 한국말(하고) 베트남말(다시)하고." 창***이가 11개월 되었을 때 시부모님과 남편하고 같이 베트남에 다녀온 투***는 모국의 가족들과 창***이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애가)크면 한국말 베트남말 다 가르쳐, 어디서 살지 몰라. 베트남살수 있어, 한국 살 수 있어. 그니까 다 가르쳐야 돼"하면서 언어를 가르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인터뷰 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투***가 베트남에서 고등학교졸업도 했지만 똑똑하다고 말했다.

사례 3)

이 사례는 문화원관계자의 말을 받아서 정리한 것이다. 필리핀결혼이주여성 가정의 경우였는데 아이가 태어나도 한국말만 쓰고 가르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엄마는 본인이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어를 가르칠 형편이 안 되자 아이에게도 말을 잘 걸지도 않고 잘 가르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아이는 엄마와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한 까닭에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방법을 모르고 문화원에 왔던 것인데 다른 아이가 머리를 때리자 그것을 자기와 노는 방법으로 인지하여 자기 머리를 또 때리도록 머리를 그 아이 앞으로 내밀

더라는 것이다.

그 아이가 엄마한테 하는 의사표현방법으로는 큰소리로 울면서 떼를 쓰는 것이었는데 다른 아이와 놀 때는 말은 안 해도 떼를 쓰지 않다가 엄마한테는 떼를 쓰며 요구하고 엄마는 눈치로 이건가 저건가 하며 알아서 대응하더라는 것이다. 그러자 문화원사람들이 걱정이 되어서 언어치료를 받아야겠다며 권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사를 가버려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례 4)

"시집와서 바로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내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말을 잘 몰랐어요. 당연히 태국말로 아이하고 이야기하면서 키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내가 태국말 하는 것 싫어했어요. 쓸데없는 말이라고요. 아이가 괜히 태국말 하다 보면 한국말만 못하게 된다고요. 나도 우리 아이가 엄마 때문에 한국말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못하는 한국말로 아이를 키웠어요. 아주 짧고 쉬운 말로요. 아이가 유치원 다니고 하면서 한국말을 잘하게 되었지만 아이가 아기였을 때 내가 한국말로 된 동화책 같은 것을 잘 못 읽어줘서 지금 초등학교 가서 읽기와 쓰기를 어려워하게 된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12]

사례 5)

결혼하고 10년이 된 쏘***는 필리핀에서 College Level을 마치고 왔으나 직업은 없다. 그녀는 종교를 통해 결혼했는데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를 전혀 이해 못하는 수준이었고 지금도 한국어 듣기는 어느 정도 되지만 말하기는 이제도 어렵다. 왜냐하면 남편이 원양어선을 타고 시부모님과는 같이 살지 않는 상황이어서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다. 같이 사는 시누이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대화를 거의 안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이 원양어선을 타는 관계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다. 그래서 한국어를 못한다고 의사소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모국어를 사용하며 자녀를 키웠다. 그러다 보니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필리핀어를 가르쳐 줄 수 있었다. 따라서 아이와 자연스럽게 따깔로어를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쳤는데 딸과는 필리핀어로 대화가 될 정도이고 영어도 보통이상으로 잘한다고 한다. 그래서 딸과는 모국어로 자주 대화하지만 남편과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남편은 필리핀어를 조금 알고 있으나 전혀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쏘***는 필리핀어도 표준어와 사투리 모두를 가르쳤는데 그러다 보니 아이는 자연스럽

12) 원진숙(2009),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교육, 「글로벌시대 다문화 현실과 교육의 과제」, p.76. 결혼 9년차 태국여성의 사례 인용

게 필리핀어와 한국어를 익히게 되어서 엄마와 이야기가 잘 통한다고 한다. 반면에 엄마인 쏘***는 10년이 되어도 한국말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해 취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필리핀어와 한국어를 잘하는 이 아이는 학교에서 읽기도 잘하고 말도 잘해서 사교적이지만 학업성적은 보통 이하였다. 담임교사는 그 원인으로 이 아이의 언어능력은 좋지만 하려는 성취의욕이 부족한 결과가 아닌가 하고 스스로 의욕을 가지고 노력하면 발전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다.

사례 6)

결혼하고 8년이 된 후***는 초등학교 1년생인 아들과 6살인 딸 하나를 슬하에 두고 있다. 그녀는 작년까지는 아이를 맡아줄 시부모님이 계셨으면 중국에 가버리고 싶다고 할 정도로 남편의 무관심과 주변에 사람이 없는 외로움으로 인해 부부사이가 좋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학교에 큰 아이가 입학하였고 아이가 자꾸 외톨이로 남아 적응을 잘 못하는 걸 보고 담임교사가 빠르게 아이의 상황을 파악하여 도움을 주어 아이도 학교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부부사이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했다.

학교선생님은 아이엄마를 학교도서관 사서도우미로 채용함으로써 경제적 도움도 받게 하고, 아이학급에서는 중국어를 가르치도록 주1회 시간을 내주어 아이한테 자부심을 갖게 해줌으로써 자존감을 높여주었다. 그래서 담임소개로 인터뷰를 하였는데 호감을 갖고 응해 주었다.

"한이한테 중국어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 왜냐고? 내가 한국어 못해, 중국어 잘해 그러니까 중국어랄 두 살 세 살 때 가르쳤어. 한이 중국말 한국말 잘해. 한이 아빠? 중국어 가르쳐도 괜찮아. 한이 아빠도 중국말 배워. 한이하고 얘기하는 중국말로 다 해. 한이 중국말 잘 안써. 그래도 다 알아들어. 한이 학교가(게 되니까) 걱정되지. 한글 몰라서. 학교 갈 때 친구들과 통할 때 한국말 해야잖아. 그래도 이젠 잘해. 작년에 중국갔다 왔. 딸은 많이 안하고. 아들 많이 배워. 아들 중국말도 써요(한자요? 했더니 그렇다고 했다) 중국말 배워. 많이 해요. 선생님 좋아요."

교사는 환이 엄마가 교실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니까 자랑스러워하고 환이 자신도 중국어 발음이 유창하여 시범도 보이고 또한 그로 인해 친구들한테 인정을 받으니 좋아하게 되어 학교생활에도 자신감을 갖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 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처음에는 부모의 잦은 다툼으로 인해 기가 죽고, 친구들과도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대화가 적었지만 이제는 학급아이들과 비교해도 다른 점을 못 느낄 정도라고 하였다. 이는 비록 한국어가 서툴면 서툰 대로 여성의 모국어라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가르치면 엄마와 자식 간에 의사소

통이 가능하게 되고 한국어를 배울 때에도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 함으로써 언어습득이 쉽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제주 결혼이주여성이 호소하는 어려움의 상당수는 의사소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사용의 어려움이었다. 이와 같은 언어적응의 어려움 때문에 이주여성들은 생활에서 고립과 소외, 그리고 편견의 장벽에 직면하고 있었다.

결혼을 하면 당사자끼리 살아온 문화가 다름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대화를 하고 부부싸움도 하면서 서로의 문화에 적응을 해나가게 된다. 그런 상황은 국내인들 끼리 결혼해도 그럴 것이고 국제결혼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국제결혼당사자의 경우에는 문화의 다른 정도가 더 심해서 대화가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깊은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서의 대화는 힘든 상황이다 보니 갈등이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폭력이 일어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가만히 보면 어느 일방의 문화를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빠른 시일내에 동화되길 요구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결혼당사자가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일 경우에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강한 한국문화 특성상 남성의 문화에 여성이 동화내지는 통합되기를 강조하는 경향이 짙다. 누구든지 결혼당사자는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상호 문화를 배워가며 적응해서 살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외국인 정책기본계획[13]도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강화와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 있는 이민행정구현, 외국인 인권옹호 등을 목표로 삼고 13개의 중점과제로 삼고 있으나 대체로 동화적 성격이 강한 정책들이다.

한편, 제주도의 다문화가정 지원단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어교실, 한국요리, 한국문화 익히기 등으로 되어 있어서 적응을 쉽게 하기위한 방책으로서 사회문화적응에는 관심을 두고 있으나 이들의 내면에서 쌓여가는 의사소통곤란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자녀교육에 있어서의 안타까움 등은 제대로 살펴봐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들을 위한 교육 관련 연구논문들도 많으나 거대 담론들만 많을 뿐 현장에서 부딪히는 지역과 가정에 적응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한 자료가 적다. 이는 아직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깨닫고 연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연구가 거대 담론과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혼이주여성이 부딪히는 문제는 '현재' '나 자신'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처방이 시급하다는데 있다.

1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도자료(2008)에 따르면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정책의 개념을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 영구적 사회구성원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이라 규정함

# Ⅳ.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언어 사용과 그 함의

## 1. 의사소통언어와 생활 적응 그리고 자녀교육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 적응에는 여러 장애 요인들이 존재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들에게 낯설고 두려운 환경에서 살면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워 중심으로 들어오려 한다. 적응의 장애요인들에 대해 과감히 맞서고,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때로는 자신이 적응하면서 한국사회의 중심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를 몰라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이들을 '한국 사람으로서' 살게 해 줄 수 있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14]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우선해야 할 일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었는데 가족 내에 언어 모델이 있어서 자주 접하며 가르치는 경우에는 한국어와 제주어에 대한 이해도 빠르고 적응도 빨랐다.

애월에 사는 베트남 김***의 경우에는 결혼한 지 5년도 안되었는데 작년에 베트남 한 달 체류예정해서 갔다가 일주일도 안 되어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빨리 한국에 올수 있게 비행기 표 달라고 해서 왔다고 했다. 왜 그랬느냐고 했더니 " 여기 경치 좋아요, 깨끗해요" 하자 한국어 강사가 "왜 베트남 모기 많아요도 하지" 하고 거들자 "여기도 모기도 많아요. 하긴 베트남 더 많아요"하는데 그 억양과 말 도중에 응? 이? 하는 것조차 현재 살고 있는 애월의 농사짓는 어머니들이 쓰는 제주어를 영락없이 닮았다. 그녀는 시부모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남편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서 좋고, 한국어와 제주어를 모두 이해한다고 한다.

그러나 소냐의 경우처럼 10년이 넘어도 가족 내에 언어모델이 없는 경우에는 언어습득이 상당히 느렸다. 그녀는 남편이 원양어선을 타고 오랜 기간을 나가 있는 동안 시부모도 없이 아이를 키웠는데 모국어를 가르치고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제주어를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하며 한국어 사용능력도 산 햇수에 비해 능숙하지 못해서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데 아직은 구하지 못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는 생활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 언어소통에 적극적인 경우에는 말이 서툴러도 몸짓 손짓 해가며 표정으로라도 의사표현을 하고, 아이 양육도 한국어가 서툴면 모국어로 라도 의사소통을 하는데, 언어소통에 소극적인 경우에는 자꾸 움츠러들어서 사람과의 만남을 기피하게 되고, 아이양육도 한국어

14) 권미경(2006), 앞 논문, p.126.

가 자신 없으면 입을 다물고 행동으로만 하려한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어의 미숙을 이유로 자녀를 키우면서 언어소통에 소극적인 경우는 자녀의 의사소통 및 이해력에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 한국어가 서툴면 모국어라도 열심히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면 한국어를 배울 때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어렵지 않게 배우는데 한국어가 서툴다고 의사소통을 덜한 경우에 자녀의 언어지체 수준이 걱정할 정도로 낮다.

유아기는 언어의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유아기 즉 1세-5세 동안 어휘는 수평적 수직적 확장과 과잉확장 과잉축소를 통해서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고 이시기에 어휘발달이 지체되면 향후 어휘발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언어발달의 지체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시기는 언어발달에 있어서 결정기라고 할 만큼 중요한 시기이다[15]

다음으로 의사소통언어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이다. 사례 1)의 경우에는 아이가 말이 더디어서 걱정이었는데 엄마가 일을 다니게 되어 어린이집에 맡긴 것이 언어발달에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이 아이의 경우에는 엄마가 베트남 말을 하면 "싫어 싫어"하면서 피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집에서 할아버지와 아빠가 돌보아 준 덕에 이제는 제법 말을 잘하고 또래 아이보다 좀 늦기는 해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대체로 그와 비슷하게 국어를 비롯한 타교과에서도 부진을 보이게 마련이다. 조영달 외(2006)조사에 의하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기본적인 말하기 듣기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읽기와 쓰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학업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와 아이가 성장한 교육환경과 문화적 배경 등이 다름으로 인하여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함으로 인해 어머니는 아이의 학교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아이 학습을 도와줄 수 없음은 어머니나 아이 모두에게 강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모국의 언어를 유년기 때부터 이중적으로 습득하길 바라고 있었다. 또한 가족들이 어머니의 나라를 방문했을 때를 고려하여 미리 자녀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고 싶어 했는데, 그 이유의 하나는 그녀의 자녀들이 모국의 가족들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 외에 또 다른 자신의 경험에서 겪은 것일 수 있는데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언어능력은 학업성취도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개방적인 문화교류를 촉진하기 때문에 민주적 다원화사회에서 개인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16]는 것을 경험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에게 자신의 출신국 언어를 써야 하는지, 한국어로만 해야 하는지 갈등을 겪기

15) 심혜숙(2007), 유아의 언어능력 및 상위언어능력과 창의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p.10.
16)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2007), 유네스코의 문화간 교육, 「다문화사회와 국제이해교육」, p.210.

도 한다. 또 언어 때문에 자녀의 학습을 도와주기가 어렵다[17]고 한다.

"한국어로 할까 러시아 말로 할까 잘 모르겠어요. 숙제를 못한다고. 수학, 선생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한국말로 수학 잘 몰라요. 어떻게 해요? 알아도 선생을 못해줘요. 나중에 수학 보니까 곱하기 빼기 이런 거 잘해요. 하지만 (한국말)선생 있으면 어려워(해)요. 그냥 수 쓰는거 아니고 규칙, 선생 있는거 이런거 힘들어요. 한국어 모르니까 다른 거 다 어려워요. 국어도 조금 어려워요" (마리나 3월13일)

"저는 그런 말을 해요. 가끔씩 우리가 지금 한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계속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애도 지금 우리처럼 한국말조차 제대로 못하고, 중국말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지는 않다. 굳이 한국에서 자라야 되면 한국어라도 정확히 하면 좋겠어요. 엄마들은 이렇게 못해요. 한국말 못해. 힘들잖아."(왕명주, 중국)

## 2. 의사소통언어 사용과 그 함의

인간은 처음부터 문화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집단속에서 태어나 자라고 살아가는 동안 문화를 소유하게 된다. 즉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문화와 관련하여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18] 그렇다면 문화를 소유한다는 것은 고립된 개인이 아닌 집단, 즉 사회의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뜻일 것이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언어든 몸짓이든 의사표현을 통하여 서로 생각을 주고받으며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의사표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의 사용이 미숙하다면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고 문화를 소유하기가 어렵다는 말일 것이다. 언어는 있으되 통하지 못하는 언어, 언어는 있으되 나를 제외하고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언어, 이럴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반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한동안 한국의 문화는 빨리 빨리 문화라고 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빨리 빨리" 라는 말을 가장 먼저 배운다고 들었다. 우리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도 한국어를 빨리 배우도록 지나치게 강요하는 바람에 그렇지 않아도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본다. 타국에 와서 6개월도 안된 시기에 그 나라 말을

17) 권미경(2006),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 과제 탐색: 결혼이주여성의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p.108.
18) 서근원(2009), 『수업에서의 소외와 실존』, p.236.

다 배우라고 한다면, 게다가 친정부모 안 계시는 타국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마저 외국말로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말이다. 이제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인간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부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아서 결국 주먹이 앞서 나가기도 하고 상담센터를 찾아 각자의 고충을 주장하기보다는 한발 뒤로 물러서서 역지사지(易地思之)해보자는 것이다. 어떤 훌륭한 이론이나 연구보다도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일은 서로를 이해하고 불쌍하게 여겨서 배려하고 위해주는 측은(惻隱)지심이 아닐까 한다. 갈등을 극복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는 언어표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느낌과 감정을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다면 답답한 위기 상황도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언어문제(68.2%)를 들고 있다[19]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20]에 따르면 한국어능력은 이들의 출신국과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출신국은 언어사용 사고방식이 비슷한 조선족, 일본인, 기타민족, 필리핀 순으로 나타났고, 거주기간은 11년 이상인 경우와 5년 이하 또는 6-10년 거주한 경우는 차이가 있었으나, 5년 이하 거주한 경우와 6-10년 거주한 경우는 별로 큰 차가 없었다고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은 3세까지는 정상범위이나 4세의 경우 3.8%발달지체, 5세의 경우에는 36%가 발달지체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언어능력이 생활연령에 비해 떨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면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세 이전에도 언어지체를 가져오며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언어학자들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인간의 언어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0세부터 4세 혹은 6세 또는 8세라고 한다.[21] 그러나 이 중요한 시기를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교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쳐버리고 있다. 자신도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은데다가 아이를 키워야하고 집안 살림을 해야 하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이는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태어났고 나날이 커가기 시작하는데 준비가 안 되었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이 자녀교육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게 되고, 국제결혼가정 자

19) 조석주 외(2008),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p.110
또한 위 자료 pp.85-86.에 보면 한국어를 못해서 느끼는 불편함으로 이웃과의 교류부족(36.2%), 자녀교육 어려움(25.7%),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획득 어려움(20.1%),행정민원서류발급 어려움(7.8%) 순서로 응답하였다고 함.

20) 정순연(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언어능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p.64

21) 1970년대 발칸이란 학자는 이중 언어 유아를 초기 이중언어유아(4살 이전)와 후기 이중 언어 유아(4-8살)로 나눠연구한 결과 두 집단 모두 단일 언어 유아보다 과제 수행률이 높았다고 함(한겨레신문). 그러므로 연구자는 언어발달단계의 중요시기를 8세까지 확대하여 보고 있음.

녀들의 언어발달지체와 교우관계, 학업장애, 정체성 혼란 등 장차 벌어질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여기고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국제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입국하여 언어와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출산과 양육을 진행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자녀는 어릴 때부터 성장과정에서 의사소통과 대인 관계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대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어가 서투른 어머니 보살핌을 받으며 크기 때문에, 어머니의 정확하지 못한 발음·어휘력부족·완성되지 못한 명사나 지시어 등의 언어사용으로 국어학습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문제는 다문화가정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여 언어사용에 대한 새로운 관점 즉 이중 언어나 다중 언어의 수용 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어는 아버지가 책임지고 가르치고 어머니는 모국 언어를 정확하게 가르쳐서 아이가 이중 언어를 익힐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고려되면 어떨까 한다.[22]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2009년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역량을 키워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2009년부터 다문화가정 관련 데이터베이스(DB)구축에 나선다고 설명했다.[23] 이는 정부에서도 이중언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키워나가려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녀양육과정에서 엄마가 의사소통을 위한 모국어를 사용하여 가르친다면 다문화가정 자녀는 비록 한국어는 서툴지 모르지만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익혀서 능숙하게 말할 수 있음으로 인해 다른 아이들에게 호기심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의 사례 6)처럼 숨겨져 있는 모국어를 찾아내어 공개하고 오히려 이를 배우게 조장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는 자긍심을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자존감과 정체성을 키워주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운데 인간이 되어가도록 하는 만남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가정 일반적인 것은 '교육'이다. 한 아이가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그가 속한 사회의 규범을 학습해가는 과정은 가정교육이라 부르고, 학교에서 교사로부터 교과를 학습하는 과정은

22) 흑자는 아버지가 관심이 적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할지 모른다. 그럴수록 아버지로서의 책임감과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한 인재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생각전환의 계기를 마련해보자는 것이다. 또한 시집식구들은 대체로 나이가 어린 결혼이주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적극 도움을 주어서 좀 더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 모국 언어라도 사용하여 자녀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3) 정혜영(2009), 다문화가정의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원광대석사학위논문 p.55

학교교육이라고 부르고, 직장에서 직업기술 등을 학습하는 과정은 사회교육이라 부르고, 학교와 같이 체계적 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형식교육이라 부르고, 일상생활과 같이 비체계적이고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형식교육이라고 부르고,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평생교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24)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시작되는 가정교육단계에서부터 언어사용미숙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기리라는 건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의 과제는 우선 태어나서 이뤄지는 가정에서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접근해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엄마인 결혼이주여성 당사자의 언어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언어적, 민족적,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교육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25)

첫째, 자국어교육 관점에서 주류언어를 일반학생같이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

둘째, 제2언어 교육관점에서 언어적 소수자가 그 사회에 적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주류언어를 가르치는 경우.

셋째, 이중언어 교육의 관점에서 언어소수자인 다문화가정 학생의 모국어와 그 주류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함께 가르침으로써 두 개의 언어에 통달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경우이다.

이상의 세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첫째의 경우는 지금 이루어지는 방법이고, 둘째의 경우는 자녀가 자라서 학교에 입학한 경우에 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어사용이 미숙한 제주도내의 대부분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유치원, 어린이집, 한 살에서 서너 살까지로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보다 미취학 아동이 더 많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방법이 무엇일까에 이 연구는 중점을 두고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사례들을 보면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답답함과 한국말을 빨리 배우지 못하는 어려움,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의 서툰 한국어 사용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 등을 해소하고 자녀의 이중 언어교육 환경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 번째의 방법을 살리는 방안이 적당하다고 보여 진다. 서투르고 짧은 한국어로 하기보다는 능숙한 모국어로서 언어모델을 정확히 해준다면 위의 사례 5, 6처럼 자녀에게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중언어 사용 환경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체성을 유지시켜주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24) 서근원(2009),위의 책, p.249.
25) 원진숙(2009), 위 논문, pp.81-8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주변의 어른, 이웃들은 바른 한국어 사용의 모델이 되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누가 모델이 되더라도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이다. 어차피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 이들이 사회생활을 어렵지 않게 해야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발전의 기회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되, 이중언어를 익혀서 세계화된 오늘날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위 사례2의 투*** 말처럼 한국에서 살게 될지 베트남에서 살게 될지 혹은 제3국 어디서 살게 될지 모르니까 언어를 알면 알수록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언어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에게 있어서의 무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V. 결 론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모국의 언어는 자신의 정체성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문화요소중 하나다. 어머니가 모국어를 사용하고 가르침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고 자녀에게도 이중의 언어를 습득할 기회를 줌으로써 이를 사용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면 매우 자신 있게 사용하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한국어와 제주어가 별 차이가 없다고 여기면서 제주어를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고 제주어를 거의 비슷하게 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빨리 익히고 생활적응이나 사회생활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정주에 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모국어의 사용을 억제하지 않고 자기 모국어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주여성 스스로 현지 언어인 제주어를 잘 익혀서 제주어 억양과 말투가 비슷한 이민자의 경우에는 자기 모국에 한 달 체류 예정으로 갔다가 일주일 만에 와버리는 그런 안정적인 정주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러므로 그들의 모국어 존재를 인정한 사용권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제적인 2세육성에 기여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들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이 연구를 마치며 제언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은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모국어를 사용하든 한국어 또는 제주어를 사용하든 자녀와 적극적으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둘째, 가족들이나 당사자는 서로의 언어를 가르치고 배우려 노력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권장하고 장려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원활뿐만 아니라 2개 국어를 할 줄 아는 유

능하고 글로벌한 2세를 키우는데 노력해야 한다.

셋째, 국가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언어미숙이 2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부터 적절한 언어교육환경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즉 일상대화는 가능하지만 독해력이나 이해력 부족으로 학습장애를 겪을 이들을 위해 어릴 때부터 즉 태어나서 말을 배울 무렵부터 유아원, 어린이집 등의 수업료를 국가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편(2009),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양서원

마크펜·키니젤리슨(2008), 『세상의 룰을 바꾸는 특별한 1%의 법칙 마이크로 트렌드』, 해냄

서근원(2003), 『수업을 왜하지?』, 우리교육

서근원(2009), 『수업에서의 소외와 실존』, 교육과학사.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2009), 『글로벌 시대 다문화 현실과 교육의 과제』,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 개원 1주년 학술대회.

수잔 로메인 (2009), 『언어와 사회: 사회언어학으로의 초대』, 소통

염미경, 김규리 (2008), 『제주사회의 결혼이주여성들』, 도서출판 선인

오은순외(200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08-17-03 2008연구보고서-2-2, 『다문화교육을 위한 범교과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승림문화사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2007), 『다문화사회의 이해』, 동녘

유철인(1997), "인구이동과 제주사회", 『제주의 인간과 환경』, 제주국제협의회 총서제6집.

윤택림(2005),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론』, 도서출판아르케.

전경수(1997), "통시와 분뇨하수처리장:환경문제와 생태민속지", 『제주의 인간과 환경』 제주국제협의회 총서 제6집

전숙자, 박은아, 최윤정(2009),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이해』, 도서출판 그린

Christine I.Bennett(2009),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학지사

James A.Banks(2009), 『다문화교육입문』, 아카데미프레스

강득자(2008),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가정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삼환(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전주대석사학위논문

강현주(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문화 표출·유지 욕구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석사논문.
권미경(2006),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 과제 탐색: 결혼이주여성의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동아대박사논문
김귀순(2000), "남성언어와 여성언어의 사회언어학적 접근", 『언어과학』 7(1).
김수현(2007), "결혼이주여성대상 한국어교재 연구", 『한국사회언어학회 가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용신(2009), "한국사회의 다문화교육 지향과 실행전략", 『사회과교육』 2009
김은정(2009),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 상명대 석사학위논문
박성혁 · 곽한영(2009), "다문화교육정책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의 방향 모색", 『시민교육연구 2009.6』 pp97-127
서 혁(2007), "다문화가정 현황 및 한국어교육지원방안", 『인간연구』 12.
심혜숙(2007), "유아의 언어능력 및 상위언어능력과 창의성의 관계", 계명대석사학위논문
송미경외(2008), 『다문화가정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오소정, 김영태, 김영란(2009), "서울 및 경기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특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기초연구", 『특수교육』 8(1), pp.137-161.
원숙연(2008), "다문화주의 시대 소수자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pp.521-549
원진숙(2009),"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언어교육", 『글로벌시대 다문화현실과 교육의 과제』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 개원 1주년 학술대회발표자료.
이수자(2004),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한국사회학』 38(2)
이중섭(2009),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박사학위논문
이혜경(2009),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pp.147-166
장온정(2007),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박사학위논문
정경운(2007), "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정기선(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미국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학위논문
정선애(2008),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람되기'와 사회적 성원권", 연세대석사학위논문
정순연(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 언어능력과의 관계", 한국교원대석사학위논문
정혜영(2009), "다문화가정의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원광대석사학위논문
조석주외 (2008),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 현(2008), "탈근대적시민권제도와 초국민적 정치공동체의 모색", 『경제와 사회』, pp.38-61

홍석준(2004), "세계화시대의 문화적 정체성의 분절과 통합", 『인문학논총』(4).

원희목 국회의원정책토론회자료(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실태와 향후대책』

제주자치도교육청(2009), '제주교육비전과 전략'에 관한 세미나 - 다문화교육의 방향과 효율적 지도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청자치행정과(2009), 『2009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수행사업현황』 2009.4.30 기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설교육연수원(2009), 『다문화교육 관리자(교감)직무연수자료』. 「제3회 제주이주민 말하기대회 발표 자료」(2009).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보도자료(2008),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